

한 91.1.29

기자사칭 50명 성폭행

5명 구속 안정제 먹여 현금까지 강탈

서울시경 특수대는 28일 방송 기자와 의사를 사칭해 부녀자들에게 접근, 신경안정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50여명을 성폭행하고 3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은 김용운(30·회사원·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17)씨 등 5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특수강도·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8시경 영등포역 광장에서 김아무개(25·여·회사원)씨에게 "방송국 기자인데 부부동반 망년회에 같이 가자"며 술집으로 유인, 신경안정제가 든 동

동주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핸드백에 든 현금 2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89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10여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5백만여원어치의 금품을 빼앗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붙잡힌 문중기(30·무직)씨 등 4명은 지난해 11월16일 밤 10시경 강원도 강릉시 경포대에서 만난 문아무개(23·여·회사원)씨 등 2명에게 산부인과 의사를 사칭, 접근한 뒤 성폭행하고 80만여원어치의 금품을 빼앗는 등 지난 86년 7월부터 지금까지

40여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2천만여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았다는 것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무전기와 카메라를 갖고 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91.23

20대 아파트옥상서 성폭행기도 여자 국교생 15m추락 중상

【파주=배경록 기자】복면을 한 20대 청년이 아파트옥상에서 국교생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밀어 떨어뜨려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1일 오후 5시30분경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미림아파트 5층 옥상에서 스타킹으로 복면을 한 20대 초반의 청년이 이 아파트에 사는 김아무개(10)양을 성폭행하려다 "김양이 소리치며 반항하자 15m 아래로 떠밀어 떨어뜨리고 달아났다.

김양은 아파트옆 테니스장 철망에 부딪혀 왼쪽팔이 부러지고 턱뼈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고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서울 적십자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를 만인 2일 오전 의식을 되찾아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김양은 당시 동네 주산학원에 다녀온 뒤 집문이 잠겨 있어 옥상으로 올라가 소변을 보던 중 복면을 한 20대 청년이 나타나 끌어안고 옷을 벗기려하는 등 성

폭행을 하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청년은 김양이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김양을 떠밀어 떨어뜨리고 달아났다.

한밤 귀가길 학원 여강사 20대4명이 번갈아 성폭행

【울산=신동명 기자】경남 울산 경찰서는 12일 20대 피아노학원 여강사를 승용차로 납치한 뒤 성폭행한 김명진(22·무직·울산군 범서면 구영리 334)씨 등 3명을 붙잡아 체포·감금치상·강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김성훈(22·무직·범서면 굴화리 229)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인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2시경 울산시 중구 태화동 태화강변에서 집으로 가던 피아노학원 강사 강아무개(23·여·울산시 중구 우정동)씨를 달아난 김씨의 경남1 마5374 프레스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내려달라고 애원하는 강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차 뒷좌석에서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